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¹⁾」: 論評

金 有 培

*

近代的 勞動市場을 분석할 경우에는 당연히 勞動의 供給要因과 需要要因 및 그 둘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工業化의 初期段階에서는 농촌으로부터 과잉노동력이 유출되는 과정이 중요하며 노동의 공급형태가 노동시장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팽창하고 근대적 노동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농촌의 잠재적 과잉노동력으로부터 유출되는 勞動供給과 都市 近代化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商業勞動力의 需要行態,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작용이라는 삼자관계를 統合的으로 파악함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60년

대 이후 韓國의 産業化過程에서 나타나는 勞動市場 構造變化의 特性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행태와 노동시장에 관한 많은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金仲秀 박사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時宜適切하게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諸行態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행태를 勞動供給側面과 勞動需要側面으로 구분하여 각각 勞動供給決定模型과 勞動需要決定模型을 이론적으로 추론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金博士의 分期計量模型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部分均衡接近으로 보다는 統合的으로 접근하려는 일차적 시도로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제시된 勞動供給決定模型은 失望勞働者 假說과 恒常賃金模型 또는 相對賃金模型 등을 檢證할 수 있는 說明變數를 선택하고 이들 變數가 年齡別·性別 勞動供給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노동수요측면을 검증하는 데 있어 新古典學

筆者: 成均館大學校 經商大 教授

1) 金仲秀,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 『韓國開發研究』, 第8卷第4號, 1986 겨울호. pp. 87~109.

派的 生産函數를 가정하고 GNP, 실질임금, 자본가격, 그리고 시간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鑛工業部門의 雇傭函數를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農林·漁業 및 社會間接資本의 就業者構成比를 추정하였는데 여기에 선 條件附 「로짓」(conditional logit)函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失業率 推移를 계층별 실업률의 변화와 노동공급의 구성비의 변화로 나누어 파악하고 「期待附 필립스曲線」을 중심으로 賃金函數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 발견된 다음 두 가지 내용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이 機能面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勞動市場政策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雇傭吸收力の 감소 추세 假說은 지지받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실질임금상승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金博士가 분석한 바와 같이 고도성장에 따른 雇傭吸收力の 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高成長을 유지하는 한 雇傭問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2) 이 연구에서 20歲 미만의 男女階層을 예외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女性勞動供給人口의 比率增大가 실업률수준의 상대적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의 女性勞動供給의 比率增大는 계속적으로 실업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金博士의 分析結果엔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와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치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

어 失望勞動效果가 모든 계층의 勞動者에 있어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勞動市場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追加勞動者假說이 더욱 작용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경우 補助勞動力的 經濟活動은 점차 증대되어 構造的 失業問題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 다른 예는 실업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커져 왔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실업의 수준뿐만 아니라 실업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構造的 失業의 문제가 우리나라 勞動市場政策의 重要한 課題임을 암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政策的 意味를 갖는 분석결과를 동시에 接合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적 지적 이외에 金博士의 논문 에 담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細分化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논문의 구성을 보면 勞動供給函數와 勞動需要函數를 추정하였을 뿐 勞動力的 需給이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行態의으로 需給調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勞動力的 供給側面에서는 연령별·성별로 구분하여 경제활동 수준을 분석하고, 勞動力的 需要는 産業別로 구분하여 行態方程式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방정식이 勞動市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이며,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調整「메카니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金仲秀 박사는 이에 대신하여, 第Ⅳ章(勞動市場 政策課題의 導出)에서 失業率 推移와 賃金函數에 대한 推定方程式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勞働市場의 過不足 및 그 調整形態는 임금이나 실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勞働市場 不均衡의 몇 가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金博士가 提示하듯이 需要供給간에 있어서의 不均衡은 우선 賃金變化를 통해 나타난다.

(2) 일시적으로 賃金調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動態的 過不足現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이 완전조정되는 데도 일정한 時間的 遲滯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연유한 현상으로 賃金變動函數에 時間的 遲滯變數를 포함시켜 추정함으로써 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雇傭主 및 政府 측에서 市場支配力을 가진 경우 賃金率 變化를 통제함으로써 人力過不足이 존재한다.

(4) 人力의 配分 및 活用上의 問題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 超過勞働, 職務再割當, 海外人力流出入 등이 그 주요한 指標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勞働市場의 制度的 要因이 분석의 주요대상이 된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成長에 따른 雇傭吸收力의 檢證을 위해 $GNP \times Time$ 變數를 도입하였는데, 雇傭吸收力의 檢證을 高成長期와 低成長期로 구분하여 검증함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雇傭吸收力은 추세변화와 더불어 변동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低成長期와 高成長期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외국에서는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鑛工業推定式 (1)(p. 97)에 의하면 GNP 10% 증대에 대한 雇傭增大效果는 약 5.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외국의 경우와 비

교하여 우리나라 勞働市場의 特性을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雇傭彈性値는 미국의 경우(약 8.7%)에 비하면 높은 수치로서 이것은 각국의 勞働市場 制度的 特性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한편 鑛工業을 더욱 세분하여 勞働集約的 部門과 資本集約的 部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면 더욱 흥미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료와 기계부문에 있어 產出高에 대한 雇傭彈性을 推定한 연구에 의하면 음식료부문이 0.44인 데 비해 기계부문은 0.5로서 기계부문에 있어 雇傭增大效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여진다³⁾. 政府의 重化學工業育成策에 의해 기계산업부문에 있어서 過剩設備投資가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이 부문에서의 雇傭增大效果가 높은 것은 기계산업 성장 및 가동률의 증가로 인한 雇傭增大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째, 研究者가 지적하고 있듯이 본 논문의 供給函數推定에는 노동공급과 노동활동 참가를 혼용하여 주로 노동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接近方式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國民經濟에 있어 勞働의 總供給量은 ① 인구의 규모 ② 노동참가율 ③ 노동의 참가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노동시간 등에 의존하며, 總勞働供給量을 결정하는 諸要因은 노동임금률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것이다. 이 경우 人口의 規模는 일정하게 주어진 것이며 人間資本, 즉 勞働技術이 일정하다는 단순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노동참가율 및 노동공급시간이 어떻게 市場賃金率에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勞働의 短期供給分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

2) 金有培, 「韓國製造業의 雇傭調整에 관한 分析」, 韓國 勞働經濟學會, p. 35.

3) 金有培, 前掲書, p. 33.

공급시간을 분석으로부터 제외시킨 것은 敷衍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다.

네째, 主勞動者가 賃金 및 勞動市場條件의 단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및 실업자의 형태로 계속 노동력에 참가하고 있다면 노동 활동수준의 기복에 따른 勞動力 크기의 변화는 주로 補助勞動者의 勞動參加率變化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補助勞動者의 供給函數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金博士는 勞動供給函數의 추정에서, 여성의 경우 出產率(TFR) 變數를 포함시킨 것 외에는 性別·年齡別로 동일한 實證分析模型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활동에의 참가결정은 가족을 비롯한 社會構成體 내에 있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즉 靑壯年期(prime age)에 있는 男性年齡層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소득에는 비탄력적인 반면 家族內 補助勞動者의 경제활동은 主勞動者의 所得水準과는 반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補助勞動者의 供給函數는 主勞動者와 다른 行態模型을 가지며, 이의 推定函數에는 主勞動者의 所得水準 變數를 포함시키거나 主노동자와 보조노동자를 구분하는 擬制變數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勞動供給函數에 있어 失望勞動者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金博士는 남성(25~49세)의 主勞動階層의 失業率을 景氣變動指標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景氣變動이 失業에 미치는 영향은 主노동계층보다는 오히려 限界勞動者인 副次的 勞動者에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망노동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景氣勞動指標로는 전체노동자의 실업률이나 14~24세의 연령계층과 여성근로자의 실업률을 병행하여 사용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섯째, 노동력의 노동공급분석에 있어 도시 부문과 농촌부문 또는 전통적 부문과 현대적 부문의 二重構造的 現象이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이 둘 사이에 서로 다른 行態方程式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노동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同質的 勞動市場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個別市場에서의 需要供給行態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공급 측면도 年齡別·性別 階層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經濟活動率을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선정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公式的 統計資料보다는 代用資料의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특히 失業統計에선 全產業의 통계보다는 「非農家失業」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Stock로서의 실업보다는 Flow로서의 실업상태를 포착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즉 Flow로서의 실업상태의 파악은 노동력의 이동이 중요한 勞動市場 緊張狀態의 指標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金仲秀 박사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은 勞動市場 參與主體의 行態를 相互連繫시키고 內生變數 및 外生變數를 분명히 설정하여 그 상호작용을 이루는 「메카니즘」을 修正·補完함으로써 理論的 模型을 體系化한다면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作用「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4) C.D. Long, "Labor Force under Changing Income and Employment. (Princeton Univ. Press, 1958)